

몽골과 고려와의 관계



수미야바타르

한국학

단국대 교수

1. 몽골과 고려와의 관계가 오로지 전쟁과 눈물의 역사는 아니다

1.0 몽골과 고려는 시기 · 공간 ·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여러 차원으로 얹혀진 복잡한 관계 속에 공존했었다. 양국간에는 고통 · 슬픔 · 전화(戰火)의 곡절(曲折)이 있었음이 부정(否定)할 수 없는 사실이나, 다른 면 즉 화해(和解)와 평화, 평안과 화목(和睦)의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염두(念頭)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전자(前者)가 비교적 자세히 규명(糾明)되었고, 후자(後者)는 덜 다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 어느 하나를 배척(排斥)하거나, 성발(性發)한 식별력(識別力)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몽려(蒙麗) 관계 연구에서 보편 타당한 진리를 탐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한즉 몽려 상호 관계의 역사 · 문화 · 외교 환경을 명확히 밝히는 방향이 필자의 탐구심이며 연구 목 적이다.

1.1 위대한 존재인 과학이 한 장의 글, 한 편의 논문에서 출발하듯이 몽려(蒙麗) 관계는 “두 나라가 영원히 형제가 되어 자손만대로 오늘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란 하나의 우호적 선서(宣誓)로 시작된다. 이것은 오늘로부터 776년 전인 1219년의 일이다. 동국병감(東國兵鑑)에 이르길:

- | | | |
|----|---|----------------|
| 원문 | ▷ | 兩國永爲兄弟萬世子孫無忘今日 |
| 발음 | ▷ | 양국영위형제만세자손무망금일 |

몽골어 ▷ Хоёр улс түрд ахан дүүс байж,
번역 투먼 울 쏠 마안 양크리이그 뿐
 우마르타그 이다.

1.2 양국간의 역사가 세계 문화사의 주목을 받을 만한 사실로 가득차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몽골과 한국이 오늘에 와서야 상호 유학생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며 금자(今茲)는 유학생 교환의 1.0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고려사 제 1 권에

원문 ▷ 己未十四年遣童子十人於契丹習其圖
발음 ▷ 기미십사년견동자십인어거란습기어
한글 옮김 ▷ 을미십사년에 사내아이 열명을 거란에 보내어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하였다.
몽골어 ▷ Хөхөгчин хонин жил, 14-р он.
번역 Хятанд тэдний хэлийг сургахаар
 арван хөвүүн илгээв 이란 기록이 있다.

거란이 920년에 자기의 대자(大字)를, 925년에 소자(小字)를 만들었다는 사록(史錄)도 남아 있으며, 을미십사년은 995년이다. 여기에 나오는 거란(契丹)족을, 그들의 언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학자들이 몽골 선조의 한 갈래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것은 우리 유원(悠遠)한 문화 교류의 감격적인 한 장면이다.

천 년이 되는 먼 옛날에 고려인들이 열 명이나 되는 수초(垂苕)들을 중앙 아시아에로 유학 보낸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고려인들이 한자(漢字), 즉 그들의 문자가 언어 구조에 부당(不當)함을 일찍이 깨닫고, 해결 실마리를 찾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의 조상이 자기와 같은 교착어(膠着語) 소유자인 이웃 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배움으로써 훈민정음 창제의 바탕을 고대로부터 은근히 닦아 왔음을 뚜렷이 고증한다고 기꺼이 지적하고자 한다.

1.3 또한, 고려말을 아는 몽골인, 몽골어를 습득한 고려인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몽골 청사(青史) 제 1권 150 쪽에 “…우리 양칸족(族)의 짜리찌구다이라는 사람이 성길사 각간(角干)께 말씀 올리기를: 내

22
23

한국의 조상은 교착어 소유자인 이웃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배움으로써, 훈민정음 창제의 바탕을 은근히 닦아 왔다.

올해는 몽골 교수가 고려에
온 지 700주년이 되는 해이
며, 또한 몽골 배우들의 내
한공연 712주년이 되는 해
이다.

아들 젤메는 다행스럽게도 남과 북의 매매에 가면서 중어(中語), 티베트어, 탕구트어, 위구르어, 노어, 솔롱고스(고려)어에 구애하지 않고, 통탈(通脫)하였으므로 덕과 지혜가 뛰어나신 성인(聖人)께 정성껏 힘을 바칠 만하다”라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올해는 몽골 유학생들이 고려에 온 지 776주년이 되는 해이다. 고려사 제 22권에는 다음과 같은 사록이 있다:

- | | |
|-------|---|
| 원문 | ▷ 己卯六年二月己未哈眞等還以東眞官人及僉從 四十一人留義州曰爾等習高麗語以待吾復來 |
| 발음 | ▷ 기묘육년이월기미합진등환이동진관인급겸종 사십일인유의주왈이등습고려어이대오복래 |
| 한글 옮김 | ▷ 기묘 6년, 이월 기미일에 합진 등이 돌아가면서 동진의 관인과 더불어 41인으로서 의주에 머물게 하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고려어를 배우고 내가 다시 올 때를 기다리라”고 하였다. |
| 몽골어 | ▷ Хөхөгчин туулай жил. 6-р он. |
| 번역 | 2 сарын шарагчин хо нин өдөр Хабжин нар буцахдаа, 3үүн Жиний түшмэл хийгээд дагалд лугаа 41 хүнийг ыйжүүд үлдээн өгүүлэхдээ: “Та нар гуулин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сурч, миний эргэж ирэхийг хүлээтүгэй” хэмээв 이다. |

1.4 올해는 몽골 교수가 고려에 온 지 700주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고려사 31권에 이르기를 :

- | | |
|-------|---|
| 원문 | ▷ 乙未二十一年 春正月壬申元遣蒙古字教李忙古大來 |
| 발음 | ▷ 을미이십일년 춘정월임신원견몽고자교이망고대래 |
| 한글 옮김 | ▷ 을미 21년, 춘정월, 임신일, 원이 몽고자 교수 이 망고대를 파견하여 왔다. |
| 몽골어 | ▷ Хөхөгчин хонин жил. 21-р он. |
| 번역 | Хаврын тэргүүн сар, Хар бэчин өдөр Юан |

улс монгол бичгийн багш түшмэл
マンгодайг илгээн ирүүлжээ 라고 하였다.

을미 21년은 1295년이며 몽골 신문자(新文字), 즉 첨월진/체월진(帖月眞) 문자를 고려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수였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1.5 이외에도 금년은 몽골 배우들의 내한 공연 712주년이 되는 해이다. 예컨대 1283년에 몽골 원 나라에서 고려에 배우들이 와서 공연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나라, 그리고 한국, 나아가서는 세계 예술의 역사에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이 즉변(即便)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고려사 29권을 펼쳐 보자.

- | | |
|-----------|--|
| 원문 | ▷ 癸未九年八月 乙巳元倡優男女來王賜米三石 |
| 발음 | ▷ 계미구년팔월 을사원창우남녀래왕사미삼석 |
| 한글 옮김 | ▷ 계미 9년 8월 을사일 원에서 남녀 창우가 왔는데 왕이 쌀 3석을 주시었다. |
| 몽골어 번역 | ▷ Харагчин хонин жил. 9-р он. 8 сарын хөхөгчин мөгий өдөр Юанаас эрэгтэй, эмэгтэй цамчид ирэхэд Ван тутарга 3 шин (mong. Šing) ийг өгөв |

몽골어와 몽골 문자의 유물은 우리에게 세 가지 형태로 즉 첫째는, 몽골어와 몽골 문자로 둘째는, 몽골어로이면서 타국(他國) 문자의 전사(轉寫)로 셋째는, 타국어 번역으로 각각 전승해 왔다. 예컨대 고려는 중세 몽골어 유물과 역사 사료의 보존에 심상히 여길 수가 없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칭찬(稱讚)의 말이 부족할 정도이다.

2. 고려는 중세 몽골 사료(史料)의 규장각(奎章閣)이다

몽골어와 몽골 문자의 유물은 우리에게 세 가지 형태로 즉 첫째는, 몽골어와 몽골 문자로 둘째는, 몽골어로이면서 타국(他國) 문자의 전사(轉寫)로 셋째는, 타국어 번역으로 각각 전승해 왔다. 예컨대 고려는 중세 몽골어 유물과 역사 사료의 보존에 심상히 여길 수가 없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칭찬(稱讚)의 말이 부족할 정도이다.

대부분 유물과 사료의 원본은 커녕 그에 대한 간단한 기록조차 본국(本國)에 남아 있지 않은 현황을 고려하여, 고려를 중세 몽골 사료의 규장각이라고 해도 맞서 거스를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 역사 서적에 기록된 몽골에 대한 사료(史料)의 규모, 정확성, 학교 설립, 학생 모집, 시험 방법, 교과서 및 사전 편찬, 통역원

과 번역원 양성, 교사 확보의 총체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후세에까지 전승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13세기의 고려에서 국제 몽골학이 출범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해 주는 문헌, 사록, 수많은 몽골 서한과 성길사 각간의 대법금(大法禁)의 한국어 번역, 몽골어 교과서, 사전 따위의 실례를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다. 그중 1215~1260년까지의 것, 그 원문, 한글 옮김, 몽골어 번역, 해석에 대해서는 필자의 <중세 한몽 관계사>(서울, 1992년)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이번에는 경진 6년(1280) 10월에 원 나라에서 고려에 보내온 한 군법(軍法)을 선택하여 분석해 보자.

본법(本法)의 특징은:

ⓐ 이 군법은 칭기스 각간의 대법금 (Činggis qayan-u yeke jasaγ)의 한 부분으로 추측된다. 서문(序文)에는 “본래 내렸던 황제의 명령을 전부 그대로 요약, 기록한 것”이라고 쓰여져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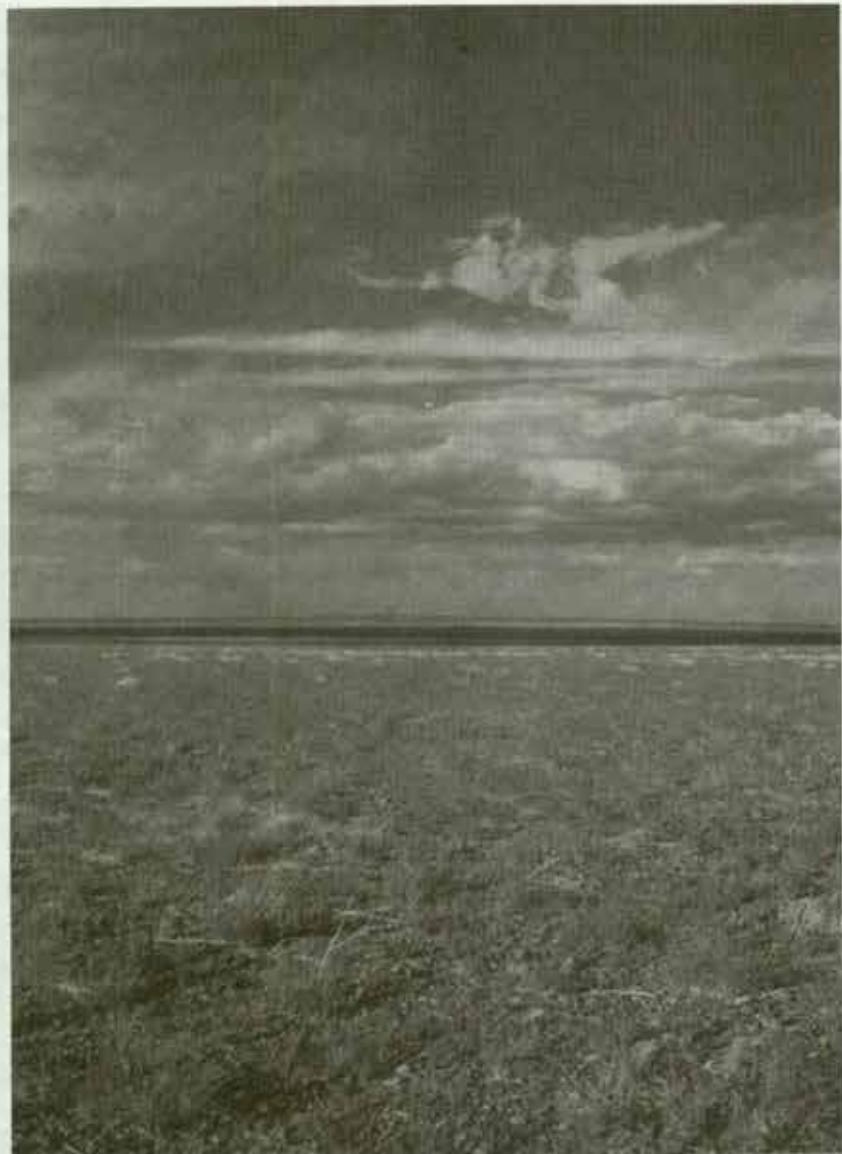
ⓑ 본 군법이 해당초 몽골어로 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듯이 다음과 같은 4개의 몽골 단어가 한자(漢字)로 표기되어, 자기 중세기 형태를 보존하면서 그대로 남아 있다:

①驅丁 '구정' – 이것은 몽골어의 küčün 이란 단어다.

몽어에는 küčü (힘, 노력), küčün, küčün-ü kümün (역군 役軍, 역부 役夫, 역정 役丁, 고용인, 고용자, 고용살이꾼, 품팔이꾼), küčün kereglekü (고용하다), küčün kereglegči (고용주) 등등의 단어와 표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단어는 Paul Pelliot 교수가 1930년에 쓴 Les mots Mongols dans le 高麗史 Korye-Sa란 논문에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몽골 단어로써 과학 유통에 들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②合必赤 '합필적' – 이 단어는 위의 논문에 열거한 40여 개의 단어 중에 있으며, 뜻을 몽골어의 qarbuγči(弓手 궁수)라고 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R-자(字)가 본래 없었는가, 아니면 전사(轉寫)할 때에 빠뜨렸는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즉, 몽골어에서는 keb (질서), kebči (질서를 지키게 하는 자)란 단어도 있다. 후자(後者)의 경우에는 “-R-자(字)가 있었다, 없었다”란 여러 말이 없고, 단어의 뜻과 형태가 맞아 떨어지는 이점(利點)이 있다.



몽골의 중앙 아이마그 초원에서
바라본 지평선. 아무리 달려가
도 대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드넓은 초원 위에서 몽골과
고려는 서로 오가면서 문화의
꽃을 피웠다.

③ 拔都兒 '발도아' - 이 단어를 학자들이 몽골어에서의 bayatur (勇士 용사)라고 재생시켰으며 옳은 말이다. 그런데 표기한 한자 (漢字)의 한국식 발음 보다 중국식 발음에 본(本) 몽골 단어의 중세기 형태가 더 가깝다.

④ 奥魯 '오로' - 이 단어는 몽골어에서의 ayil, ayuray (耗廬 전려, 後援 후원)의 뜻이란 학자들의 의견과 동심(同心)이다.

⑤ 이 군법은 중세기 몽골인들의 자연 보호 정신을 명백히 반영하고 원정(遠征)할 때에도 지키도록 법정(法定)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를테면 “관군(官軍) 관원들이 엄격히 금지할 것은 각자가 관할하는 군인 군마가 주둔하거나 출정하여 지나가는 곳들에서 전자에 황제의 명령으로 금지한 부근 지역들 이외에도 무릇 새로 투항하여 온 지역이기만 하면 동물들을 몰아서 백성들의 논밭의 곡식을 밟거나 실과 나무 뽕나무를 먹지 말게 하며….”란 기록이 있다.

④ 이 군법은, 타국의 문화 유산, 그리고 중세기 여자들의 인권 옹호 문제에 대한 몽골인들의 태도, 그것을 공식 법화(法化)시켜 법적 안정성을 보장케 한 진실로 홀륭한 사회적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또 남의 집과 무덤을 파괴 약탈하지 못하게 할 것. 군관 군인들이 새로 투항하여 온 고을들과 성들에서 자기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처나 딸과 강제적으로 결혼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만일 서로 의논이 맞아서 결혼한 자라 할지라도 그 여자에게 혹 친족이나 다른 식구가 있거나 또는 고용인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전매(典賣)하거나 시집보낼 수 없다”라는 귀중한 내용을 담은 사항들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13세기 몽골 법전의 한국어 번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14 管領以備勾當亦不得私使軍人投管運 | 16 15 及不得將管軍官負占管定司招收民戶等 | 17 16 餘軍人過夜止於守城軍內輪差守宿委官 | 18 17 不擇依舊各歸本翼今後大小官員必用合赤拔都兒靠損其 | 19 18 通行輸當係官差役如遇出軍必用合赤拔都兒靠損其 | 20 19 依舊各歸本翼今後大小官員必用合赤拔都兒靠損其 | 21 20 發付本翼親管頭目管領與其餘軍人一處並 | 22 21 人過夜止於守城軍內輪差守宿委官 | 23 22 不擇依舊各歸本翼今後大小官員必用合赤拔都兒靠損其 | 24 23 人過夜止於守城軍內輪差守宿委官 | 25 24 人過夜止於守城軍內輪差守宿委官 | 26 25 人選拔親丁好漢一名常要數足間習 | 27 26 驅名驅丁軟弱之人當役所據練定好軍無 | 28 27 得私下交換及不得因梯已勾當虛作別名 | 29 28 當官相驗堪充軍者方許替換擇司給放 | 30 29 今還家合替軍未經相視一面無引逃走者 | 31 30 令還軍還家若有輪定必合交換者今管領司 | 32 31 放軍還家若有輪定必合交換者今管領司 | 33 32 驗欵依所奉聖旨事意及照依樞密院條畫 | 34 33 區處更爲行下合屬於軍人屯住去處常切 | 35 34 明白開讀嚴功省諭施行一管軍官特所管 | 36 35 軍人選拔親丁好漢一名常要數足間習 | 37 36 驅名驅丁軟弱之人當役所據練定好軍無 | 38 37 文抄錄在前并樞密院定到條畫開坐請照 | 39 38 今將元降聖旨全 |

勾當新附軍人但請糧者亦依此例軍官合
目赤人數襄陽府時行省已有定到各設教
處到人口頭匹一切諸物各自爲主本管
頭目人等並不指名拘收亦不得擇機罪名
遇嚇取要一軍人馬匹軍官不得假借換要

及不得勾當差使軍人馬匹致有瘦弱倒死
勒令軍人借債補員生受一軍前若有患病
軍人隨今寺高醫工對證用藥看理各望還
好人服侍仍仰本翼額設首領官不妨本職
專一司病看理病軍將養復元方許輸當差
使遂旋具數開呈本翼若較考時驗病死軍
人多寡定奪司病官賞罰施行一軍人對陣

相殺就陣亡沒者仰本管頭目從實供報保
結呈復依例給賞本戶軍役擬依舊例存恤
一年若病死者亦以存恤半年限外向起戶
下其次人丁補役一攻城野戰但遇敵人對
陣相殺者將委實向前出力獲功頭目軍人

到衆推詳明白端的從把軍官閒坐花名獲
功實跡保定行省行院依例保奏給降官賞
授功者亦對指證是實取勅無詞招伏申上
定斷無得中間看據恩讐虛申功過引惹違
錯一千戶選據信實錢糧官二員遇有官
給犒貨委令關支對衆給散本管頭目人等

50不得中間剋減若有差出事故軍人仰將關
到錢物官爲知數收貯本軍回日給付身故
者發付家屬無致侵使應匿一軍馬糧料若
遇閑支亦今已委信實錢糧官管領關支不
得剋減如有身故軍糧倒死馬料食用不盡
者見在數目却行回納或差出軍馬糧料收

51私下破費一衣甲器仗軍需什物預爲點
52數足備聽候不測用度無致臨時闊少才方
53督逼軍人逐急惜價補賞以致多出利息生
受一既軍中無擾却有在逃軍人仰本管軍

60官隨即申覆上司行移所屬與魯官司差人
前去約會一同根拏須要得獲元逃正身取
61亡事故軍者仰與魯官欽依聖旨軍意開生
62軍官姓名申院以憑取閱一軍馬也守去處
63管於軍營內各千戶百戶牌字一處宅住
64行如與魯官井坊里正鄉司隣佑人等
65和情推調不允元逃正輩者依已定罪名斷
66處除近裏地面先有聖旨禁治外但係新附
67貧賤加禁治各管軍馬也住并出征經過去
68地面不得收放頭匹踏踐百姓田禾唱咬花
69桑樹及不得於百姓之家取酒食宰殺牲
70鷄鴨刀奪百姓一切諸物一省諭管官吏
71軍人等接谷鹽酒稅麪一切應禁之物無

한글 옮김 ▽

“이제 본래 내렸던 황제의 명령을 전부 그대로 요약, 기록한 것과 이 전의 추밀원에서 제정한 조례들을 아울러 다음과 같이 열서(列書)하여 보내니 대조, 검사하여 전자에 전달받은 황제의 명령과 추밀원의 조례에 의거하여 일을 처리하고 다시 군인들이 주둔하러 간 곳으로 이것을 보내어 항상 명백하게 읽어 주고 엄밀하고 상세한 훈계를 하도록 할 것이다.

[1] 관군관은 자기가 관할하는 군인들 가운데서 친정(親丁)으로 훌륭한 자 1명을 선발하여 항상 충분히 군인들에게 무예를 연습시켜 숙달하도록 하며 전진(戰陳)의 구성과 변화 진퇴하는 법칙 등을 교련하여 모두 정예로운 군인으로 단련시킬 것이다.

또 구정(驅丁)이나 연약한 사람을 고용하여 원래의 군대 대신에 사람 수만 채우며 병역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미 훈련하여 둔 좋은 군인들을 제멋대로 교환할 수 없으며. 또 남 모르게 가만히 그 누구에게서 금전을 받고 그 대문에 있지도 않은 이름을 지어 두고 군대에서 놓아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교대가 있으면 반드시 교대할 자들을 모아서 관총사(管總司)의 해당 관으로 하여금 서로 대조, 검사하게 하여 군대로 복무할 수 있을 만한 자라야 비로소 교대하는 것을 허락하고 총사에서 증명서를 주어 병역에서 놓아 보내 귀가하게 할 것이며, 교체하여야 할 군인이 한 번도 서로 대면하여 보지도 않고 증명서 없이 도망간 자는 곧 도망한 군인과 같이 취급할 것이다.

하급에 있는 군관들, 진무들은 자기 독단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체시키지 못하나 시위(侍衛) 친군(親軍)인 경우에는 이 규례에 구속되지 않는다. 만일 불의에 관원을 파견하여 점검 시찰하여 군인 수가 적든가 또는 구구(驅口), 연약한 사람을 고용하여 명목을 채우는 일이 드러나면 반드시 추궁하여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다.

몽골어 번역 ▽

Одоо, у р ь д айлдсан Х а а н ы з а р л и г ий г б ү р н э э т э р х э в э э р х у р а а н б у у л г а ж, Чхумилвөний айлтгалын хамтад энэ мэт сийрү

“관군관은 자기가 관할하는 군인들 가운데서 친정(親丁)으로 훌륭한 자 1명을 선발하여 항상 충분히 군인들에게 무예를 연습시켜 숙달하도록 하여 항상 충분히 군인들에게 무예를 연습시켜 숙달하도록 하며…”

Үлэн илгээсэн үүнийг, урьд хүртээсэн хааны зарлигт ай хослуулан хэргийг хөтлөж, цэрэг шинээр суусан газар үүнийг илгээж, ямагт тов тодорхойяа дуудан өгч, хатуу чанад сурган сэнхруулвээс зохимуй.

Нэгэн зүйл. Цэргийг захирах түшмэл нь, харьяа цэргээсээ шадар сайн нэгэн хүнийг сонгон гаргаж, цэргүү дийг байнга цэргийн эрдэмд сайтар сургаж, байлдааны жагсаалын бурдэл, элдэв хувирал, давших ухрах арга зэргийг сургаж, бүгдийг гавшгай цэрэг болтол нь хатуужуулваас зохимуй. Мөн, хүчин буюу яданги хүнийг ацаглан жинхэнэ цэргийн оронд хүний тоо бөглүүлж, цэргийн алба хашуулахыг цаазлах ба сургуул илсан сайн цэргийг зоргоор солихыг цаазлах ба, мөн түүнчлэн эчнээ хэн нэгэн хүнээс эд таваар, алтан зоос авч хэрэглэснээс болж, биеэр эс аху нэрийг үлдээж, цэргээс халж гэрт нь одуулахыг цаазламуй. Халааны хүмүүн аху аваас, Бүгдийг захирах яамны тухайн түшмэлээр тэднийг заавал хянан байцаалгаж, цэргийн алба хааж чадах аваас солихыг зөвшөөрөх бөгөөд, Бүгдийг захирах яамнаас баримт бичиг шийтгэн олгож, цэргээс халж хариар одуулах бөгөөд, халалцах хүмүүс эс нүүрэлдэн, бичиг баримт үгүйгээр одвоос, оргодол цэргийн нэгэн адил үзэмуй. Доод тушаалын дарга нар дур мэдэн бичиг шийтгэн олгож, цэргийг халж солихыг цаазлах бөгөөд хиа шадар цэрэг эл зүйлд эс хамаарамуй. Түшмэл түшээ нарыг зарж хянан байцаалгах үес, хэрэв цэргийн тоо дутах буюу оргодол хийг ээд яданги хүнийг ацаглан нэрийн цэсийг гүйцээсэн байх аваас заавал зэмлэж ял хэлэлцэх боломуй.

{1] 상·하급의 관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합필적(合必赤) 발도아(拔都兒) 군인은 주둔·방어하러 간 곳에서 때때로 함부로 자기 소속 인원으로 차지하여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 황제의 명령이 도착한 날로 본의(本翼)에 돌려보낼 것이요, 친관(親管) 두목은 그들을 나머지 군인들과 함께 관할하여 함께 다같이 차별 없이 교대 순서가 돌아오면 관계 관원에게로 익사를 하도록 파견할 것.

만일 출병이 있어서 반드시 합필적 발도아를 써야 할 자들은 해당 장소에 도착한 날에 각 익군의 수효를 참작하여 선택·지정하여 징발해 낼 것이며 돌아가는 날에는 그 이전대로 각각 본익에 돌려보내도록 할 것으로 금후에는 상·하급 관원을 막론하고 주둔·방수하러 간 곳에서 이전처럼 항상 합필적 발도들을 함부로 차지하고 부려먹고 그 나머지 군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밤이 되면 다만 수성군(守城軍) 가운데에서 숙직 수위병을 교대로 내게 하여 관원에게 위임하여 관할케 하여 위수를 주관하게 할 것. 또 자기 뜻대로 군인들을 공사, 노역, 영선, 운반 작업에 동원하여 쓰지 못하며 또 관군 관원으로 하여금 정사(定司)를 차지하여 관리하게 하거나 만호 등을 초모하는 등의 일을 하게 할 수 없다.

신부군인(新附軍人)으로서 무릇 양식을 청하러 오는 자도 역시 이 규례에 따른다. 군관들의 합필적인 인원 수는 양양부(襄陽府) 때에 행성에서 이미 규례를 정한 바 있어 각각 그 수효를 결정하였던 만큼 이 수효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더 많이 차지하지는 못한다.

Нэгэн зүйл. Их бага түшмэл түшээ нарын харьяанаа а ху Хэбичи батур цэргийг, сахиж суухаар очсон газар нь жинхэнэ өөрийн харьяаны хүн болгож болохгүй. Хааны зарлиг хүрсэн тэр өдөр, бүгдийг уг жигүүрт нь илгээх бөгөөд, ургийн захирагч тэргүүн нь тэднийг бусад үлдсэн цэргийн хамт захирч байгаад, халах ээлж болмогц уул түшмэл рүү нь илгээвээс зохимуй. Цэрэг хөдөлж, заавал Хэбичи Батурыг хэрэглэх хүмүүс нь тухайн газраа хүрсэн өдрөө жигүүрийн цэргийн тоог харгалзан сонгон авах бөгөөд, түүнээс хойш их б

ага түшмэл түшээ хэн боловч дарангуй сууж сахихаа р очсон газраа урьд адил байнга Хэбичи Батурыг нэг мөсөн хэрэглэж, бусад цэргүүдийг хохируулж болох гүй. Шэнэ болмогц, хотыг сахих цэргээс харуулыг ээл жлэн гаргаж, түшмэлд даалгаж эргүүлж байтугай. Мөн, зоргоороо цэргүүдийг дайчлан газар шорооны болон барилга байшин барих, сэлбэх, боолын хийгээд зөөх тээвэрлэх хүнд хүчир ажил хийлгэхийг цааз лах бөгөөд, цэргийн дарга нараар, тогтмол яаман захируулах болон иргэд өрхөөс цэрэг татах ажил зэргийг эрхлүүлж болохгүй. Шинээр хавсрах цэрэг хэдүй хүнс нэхэхээр ирсэн авач, мөн эл зүйлд хамарагдамуй. Цэргийн даргын Хэбичийн тоо нь Янянфугийн үес Буудлын яамнаас с урьд нэгэнт тогтоосон байх тул, тэрхүү тооноос хэтрүүлэн илүү авахыг цаазламуй.

[1] 출병 시에 군인들이 구득한 사람, 동물, 기타 일체의 물건들은 각각 그 구득한 군인이 그 주인으로 될 것이며 그 군인을 관할하는 두 목 등은 결코 지명(指名)해서 거두어낼 수 없으며 또 죄명을 들씌워 위협, 공갈하여 빼앗아낼 수 없다.

Нэгэн зүйл. Цэрэг хөдөлсөн үед цэргийн олсон хүн, мал, бусад бүх эд таваар нь тус 투스 тэрхүү цэргийнх болох бөгөөд, тэр цэргийг харьяалах дарга захиран хурааж авахыг цаазлах бөгөөд, мөн ялд унагах буюу сурдуулэн дээрэмдэхийг цаазламуй.

[1] 군인들의 말은 군관이 그것을 빌릴 수도 바꿀 수도 없으며 군인들의 말을 주관하여 일을 시킴으로써 야위고 약하게 만들어 쓰러져 죽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또 그 경우에 군인들에게 강요하여 빚을 내어 사서 보충케 하여 거저 받아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출병 시에 군인들이 구득한 사람, 동물, 기타 일체의 물건들은 각각 그 구득한 군인이 그 주인으로 될 것이며 그 군인을 관할하는 두 목 등은 결코 지명(指名)해서 거두어낼 수 없으며 또 죄명을 들씌워 위협, 공갈하여 빼앗아낼 수 없다.”

Нэгэн зүйл. Цэрэг эрсийн морийг ажилд зүтгүүлэн эцээж тураах, үхүүлэхийг цаазлах бөгөөд, тийн тохиолд цэргүүдийг албадан хувь гаргуулан худалдан авч нөхөхийг цаазламуй.

[1] 군대 내에서 만약 앓는 군인이 있으면 곧 유능한 의원들로 하여금 진찰, 투약하며 간병하게 할 것. 각역에서는 좋은 사람을 선발하여 간호를 하여 줄 것이며 (그런 때는) 이내 본의에서 정원(定員)을 받을 것이니 수령관은 본직에 관계 없이 전문적으로 병을 맡아 간호하게 할 것이요. 병 들었던 군인이 휴양하여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에 비로소 교대 당번에 보충하여 보낼 것이며 수시로 그 숫자를 기록하여 본의에 보고케 할 것이다. 만일 검열 때에는 병으로 죽은 군인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사병관(司病官)의 상벌을 결정하여 시행할 것이다.

“군대 내에서 만약 앓는 군인이 있으면 유능한 의원들로 하여금 진찰, 투약하며 간병하게 할 것.”

Нэгэн зүйл. Цэргийн дотор өвчилсөн цэрэг байх аваас с даруй сайн оточид үзүүлж, эм уулган анагааваас зохимуй. Жигүүр тус бүр сайн хүнийг сонгон сувилуулах бөгөөд, жигүүрүүдээс тогтмол хүнийг гаргуулан авах тул уг албыг үл харгалzan өвчинийдагнан сувилах бөгөөд, өвдсөн цэрэг сэхэн яларшсан цагт сая халаа харуулд нөхөн илгээх бөгөөд, түүний тоог уг жигүүрт нь зохисыг үзэн мэдэгдвээс зохимуй. Шалган байцаах үес, өвчилж үхсэн цэргийн олон цөөнийг харгалзан, өвчин анагаах түшмэлийн шан хийгээд ялыг тогтоон шийтгэх болай.

(1) 군인들이 전진(戰陳)에서 적군과 전투하다가 전사한 자가 있으면 그 직속 두목에게서 사실로 보고를 받고 보증서를 다시 받아서 예에 따라 상을 줄 것. 본호(本戶) 군역(軍役)은 전례에 따라 1년 간 원호하여 주되 연한이 지나면 해당 군호(軍戶)의 그 다음 차례의 장정으로 군역에 보충케 할 것이다.

Нэгэн зүйл, Цэргүүд дайны талбарт дайсантай тулалд аж байгаад алагдаас, түүнийг шууд харьялах дарга ас үнэн мөнөөр нь мэдээ авч, мөн дахин батлах бичиг авч, журмыг мөрдөн шан өгтүгэй. Журмыг мөрдөн, уг өрхийн цэргийн албыг нэгэн жил хэлтрүүлэх бөгөөд, мөн өвчилж үхсэн хүний өрхийг ч хагас жил хэлтрүүлэх бөгөөд, хугацаа нэгэнт дуусваас тухайн өрх цэргийн албанаа нөхөгдөн оромуй.

[1] 성을 공격하거나 들판에서 싸우거나 할 때 다만 적군을 만나 서로 대진하여 사살한 자는 그 사실대로 앞을 향하여 뛰어 나가서 용력을 내어 공을 세운 두목이나 군인들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명백하게 확인한 후 종파(從把) 군관이 명부와 군공의 실적을 열서(列書)하고 보증하여 결정하며 행성행원은 관례에 따라 황제께 보고하여 관상(官常)을 주게 할 것.

태만하였던 자들도 역시 증거를 가지고 문초하여 변명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된 자들은 상급에 보고하여 죄를 판결하도록 할 것이며 중간에서 은혜와 원수의 관계에 따라 공적과 과오를 허위 신고하여 착오가 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Нэгэн зүйл. Хотыг уулгалах буюу талд тулалдах үес, дайсантай халз тулж алагдсан хүн хийгээд, үнэхээр урагш хэтийдэн гарч эр зориг гарган гавьяа байгуулсан дарга, цэргүүдийн тухай олон хүнээс лавлан то друулж нутласны эцэст харьялах дарга нь тэрхүү гавьяаг бичиг үйлдэн давхар нутлах бөгөөд, Буудлын яамны түшмэл нь журмыг мөрдөн хаанд айлтгаж, хэргээ м хийгээд шан олгууламуй. Ухарч зугатсан хүнийг мөн нэгэн адил нутлан байцааж, үнэн болваас түүнийг дээш айлтгаж, ял оноох бөгөөд, ачлал хийгээд атхаг

“태만하였던 자들도 역시 증거를 가지고 문초하여 변명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된 자들은 상급에 보고하여 죄를 판결하도록 할 것이며…”

сэтгэлийн үүднээс гавьяа хийгээд ялыг завсраас хуурамч мэдуулж эндүүрэлд хургэхийг цаазламуй.

[1] 매개의 천호(千戶)는 믿음성 있고 독실한 전량관(錢糧官) 2명을 선발하여 관청에서 군인들을 위로하여 음식을 특별히 먹이거나 상을 줄 때에는 그에게 위임하여 군중들에 대한 급여를 나누어 주게 할 것이며 직계 두목 등이 중간에서 깎고 잘라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약 다른 곳에 파견할 일이 생긴 군인들은 관계되는 금전 물품을 관에게 그 숫자를 인계하고 본군에 회수 보관하여 두었다가 돌아오는 날에 내어 주게 할 것. 그 군인들 가운데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보내어 주어 침범 사용하거나 은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관청에서 군인들을 위로하여 음식을 특별히 먹이거나 상을 줄 때에는 그에게 위임하여 군중들에 대한 급여를 나누어 주게 할 것이며...”

Нэгэн зүйл. Мянгатан бүр, үнэн итгэлт цалинт түшмэл хошоодыг сонгон гаргаж, цэргүүдийг хөхиулэн жич бу даалах хийгээд шан хүртээх үес, тэдэнд даалган ний тэд хэшиг хүртээх бөгөөд, шууд харьяалах түшмэд за всраас нь хулгаж хороохыг цаазламуй. Өөр газар эчи гсэн цэрэгт оногдох зоос, эд юмыг тоо ёсоор хадгалж байгаад, эгэж ирсэн өдөр нь гарган өгвөөс зохимий. Тэд цэргээс, эндэж эрсдэгсэд байх аваас ар гэрийнхэнд нь илгээн олгох бөгөөд зам зуураас хулгах буюу дарагдуулахыг цаазламуй.

[1] 군인 군마의 식량 사료를 인도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면 역시 이미 위임하였던 바 믿음성 있고 독실한 전량관으로 하여금 그 인도 사업을 관할케 하여 축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만일 사망한 군인의 식량과 병사한 군마의 사료로써 다 먹지 못한 것 이 있으면 잔존 수량을 도로 바치게 하며 또는 출장한 군인 군마의 식량 사료는 거두어 두었다가 돌아오면 지급하게 하며 또는 다음 달에 양식을 청구하는 군인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쓰게 하여 사사로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Нэгэн зүйл. Цэргийн хоол хүнс хийгээд, цэргийн мори ны тэжээлийг зөөх хэрэг гарах үес, урьдын нэгэн адил үнэн итгэлт цалинт түшмэлд тэрхүү ажлыг даалган, алдаж хорогдуулахыг цаазламуй. Нас барсан цэргийн хоол хүнс, үхэж үрэгдсэн морины идэш тэжээлээ с үлдсэн байваас, тэрхүү үлдсэн хэсгийг эгүүлэн тушаах бөгөөд, мөн, гадагш явсан цэргийн хоол хүнс, мориных нь тэжээлийг хадгалж байгаад буцаж ирмэгц өгөх, эсвэл, дараа сард хоол хүнс хүсэх цэргүүдэд түүнийг өгч болох бөгөөд, эс хямгадан үрэгдүүлэхийг цаазламуй.

[1] 갑옷. 병기. 군수 물자는 미리 직접 시찰하고 충분히 갖추게 하여 불의의 용도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요, 일이 생겼을 때에 부족하게 되자 비로소 군인들을 독촉 강요하며 급히 몰아서 빚을 내어 구매 보충케 하여 많은 이익을 공짜로 받아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Нэгэн зүйл. Хуяг дуулга, цэргийн зэр зэвсэг, хүнс тэжээлийг урь даас нягт хянан байцааж, сайтар бэлтгэж, гэнэтийн хэрэгцээнд бүрэн хүрэлцэхүйц байлгаваас зохих бөгөөд, хэрэг болох үест, дутмагц цэргүүдийг албадан шаардаж, хувь гаргуулан арилжин авч нөхөх хийгээд завсраас хонжоо хайхыг цаазламуй.

“이미 군대 내부에 소요가 없음에도 오히려 도망가는 군인들이 있으면 직계 군관들은 그 때마다 즉시로 상급 관청에 신고하고 도망 군인의 소속 오로 관사(官司)에 통보하여 사람을 보내어 모이기로 약속하고 함께 철저히 수색하여 모름지기 본래의 도망한 본인을 붙잡아서 문초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군전(軍前)에 세우고 이미 내린 황제의 명령에 비추어 죄명을 결정하고 군중 앞에서 처벌할 것.”

¹¹ [1] 이미 군대 내부에 소요가 없음에도 오히려 도망가는 군인들이 있으면 직계 군관들은 그 때마다 즉시로 상급 관청에 신고하고 도망 군인의 소속 오로 관사(官司)에 통보하여 사람을 보내어 모이기로 약속하고 함께 철저히 수색하여 모름지기 본래의 도망한 본인을 붙잡아서 문초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군전(軍前)에 세우고 이미 내린 황제의 명령에 비추어 죄명을 결정하고 군중 앞에서 처벌할 것.

만일 오로관이 방리정(坊里正) 향사(鄉司)의 이웃 사람들로 도망 군인을 도와준 자 등과 함께 실정을 알고도 조사하여 본래의 도망한 정군(正軍)을 붙잡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결정한 죄명에 따라 판결하여 보낼 것이다.

만일 군관이 비밀리에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또 소속 오로관에 통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관원을 파견하여 오로들 가운데서 도망했거나 사고있는 군인들을 대신하여 보충케 한 자는 오로관이 황제의 명령서의 뜻을 받들어 그 군관의 성명을 써서 추밀원에 신고함으로써 그 사건을 취조 심문할 때의 증빙으로 되게 할 것.

Нэгэн зүйл. Цэргийн дотор үймээн болоогүй ч гэсэн, цэрэг орговоос шууд харьяалах дарга нь тэр даруй дээд газар мэдээлж, оргодол цэргийг, харьяалах аолу ийг захирах Түшмэлийн газар мэдэгдэж, хүн зарж хүүүсийг цуглуулахаар зарлахын хамт сайтар эрж эрх биш уг оргодолыг олвоос, байцаан лавлаж үнэн эсэхийг магадласны эцэст цэргүүдийн өмнө гаргаж зогсоог оод, урьд айлдсан хааны зарлигийн дагуу ял унагаж, олны өмнө гүйцэдгэх болай. Хэрэв аолу түшмэл нь, гудамж зээл, саахалт гацаа руу зугатсан цэрэгт тусласан хүний хамт уг байдлыг мэдсээр атлаа эрж хайж босголыг бариагүй болваас, мөнхүү тогтоосон ялд унагах болай. Хэрэв цэргийн дарга нь дээд газараа мэдэгдэл үгүй мөн, харьяа аолу түшмэлд мэдэгдэл үгүй, далдуур түшмэл нараа зарж босгол цэргийн орыг аолу дундаас нь нөхөн гаргуулсан байваас, аолу түшмэл нь хааны зарлигийг дагаж, тэрхүү даргын нэрийг Чхүм ильвэнд мэдээлж, хэргийг байцаан шийтгэхэд гэрч болумуй.

[1] 군대 군마가 주둔하려 간 곳에서는 모름지기 군관 내의 각 천호 백호 패자(牌字)를 관할하여 한 곳에다 주둔시킬 것이며 총파(摠把) 관원 관계 관원의 관사 숙소를 거리에 있는 새로 투항하여 온 관민(官民)의 주택들을 빼앗아 사방으로 흩어져 있게 배치함으로써 새로 투항하여 온 백성들을 기만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Нэгэн зүйл. Цэрэг дарангуй суухаар очих газарт, цэргийн даргын дотроос мянгатан, зуутны пайзтаниг за авал нэг дор суулгах бөгөөд, шинээр дагасан түшмэд, иргэдийн орон байрыг булаан түшмэл түшээ нарт авч өгөн тэднийг энд тэндгүй тархаан суулгах буюу дагасан иргэдийг хуурч мэхлэх хийгээд чирэгдүүлэн зовоохыг цаазламуй.

[1] 관군 군인들에게 깨닫도록 잘 타일러서 투항해 온 관리 백성들의 주택, 점포, 재산, 전지(田地), 화과(花果), 송죽(松竹), 채균(菜菌), 일체의 임목(林木)을 강제로 빼앗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강제로 빼앗은 것은 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할 것. 또 남의 집과 무덤을 파괴, 약탈하지 못하게 할 것.

Нэгэн зүйл. Цэргийн дарга нь цэргүүдээ сайтар сэнх рүүлэн ухуулж, дагаар орсон түшмэд, иргэдийн орон, байр дэлгүүрт гэр, эд хогшил, тариалах газар, цэцэг жимс, нарс хулс, ногoo мөөг, элдэв цэцэглигийг дээрэ млэн авахыг цаазлах бөгөөд дээрэмлэж авсан зүйлийг уг эзэнд нь эгүүлэн өгвөөс зохимуй. Мөн, бусдын гэр орон, булш бунхныг эvdэж тонохыг цаазламуй.

[1] 군관 군인들이 새로 투항하여 온 고을들과 성들에서 자기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처나 딸과 강제적으로 결혼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만일 서로의 의견이 맞아서 결혼한 자라 할지라도 그 여자에게 혹 친족이나 다른 식구가 있거나 또는 고용인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전

“관군 군인들에게 깨닫도록
잘 타일러서 투항해 온 관리
백성들의 주택, 점포, 재산,
전지, 화과, 송죽, 채균, 일
체의 임목을 강제로 빼앗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매(轉賣)하거나 시집보낼 수 없다.

Нэгэн зүйл. Цэргийн дарга хийгээд цэргүүд нь, өөрийн хүчинээ дулдуйдан, шинээр дагасан алив хот, гацаан аа эмс хийгээд охид той хүч түрж гэрлэхийг цаазлах бөгөөд, хэдүй хоорондоо зөвшилцэн гэрлэсэн ч боло в, тэрхүү эмийн садан төрөл, бусад ам бүл, зарц байл аа ч гэсэн тэднийг зоргоор худалдах буюу гэр-лүүлэхийг цаазламуй.

15

[1] 관군 관원들이 엄격히 금지할 것은 각자가 관할하는 군인 군아가 주둔하거나 출정하여 지나가는 곳들에서 전자에 황제의 명령으로 금지한 부근 지역들 이외에도 무릇 새로 투항하여 온 지역이기만 하면 동물들을 몰아서 백성들의 논밭의 곡식을 뺏거나 실과 나무 뽕나무를 먹지 말게 하며 백성들의 집에서 술, 음식을 무상으로 먹거나 돼지, 닭, 거위, 집오리 등을 잡아먹지 말며 백성들의 물건이면 무엇이든지 빼앗지 못하게 금지할 것이다.

Нэгэн зүйл. Цэргийн дарга хийгээд түшмэл түшээ нарын хатуу цаазлах зүйл болваас, харьяа цэргийн дара нгуй суух хийгээд цэрэг хөдлөх, цэргийн агт өнгөрөн олох газар, урьд хааны зарлигаар нэгэнт дархалсан газраас гадна, шинээр дагасан нутаг газар малыг олноор хурааж, иргэдийн газрын үр тариаг гишгүүлэх давтах буюу жимсний мод, яlam 모дыг идуулэх хийгээд иргэдийн гэрээс архи дарс, хоол хүнсийг өртөггүй авч идэх хийгээд, гахай, тахиа, тэжээвэр галуу, тэжээвэр нугас зэргийг алж идэхийг цаазлах бөгөөд, иргэдийн эд хогшлоос өчүүхэн зүйлийг ч атугай дээр эмлэхийг цаазламуй.

“군관들은 군인들에게 함부로 할당하여 몇 푼의 돈, 몇 마리의 가축 기타 일체의 물품들을 거두어 내는 것을 금한다.”

16

[1] 관군 이중(吏衆) 군인들에게 잘 타일러서 차, 소금, 술, 세국(稅
魏) 그 밖의 일체 법률로 금지하는 통제품들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것. 만일 위반하여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 정범(正犯)을
법률 조항대로 추궁하여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를 관할하고 있는 두목
으로서 단속을 잘못한 자도 또한 단죄할 것이다.

Нэгэн зүйл. Цэргийн дарга, түшмэд нар, цэргүүдийг са
йтар сургаж, цай, давс, архи, татварт хөрөнгө зэрэг
хуулиар цаазалсан зүйлээс болж ялд унахаас сэрэмжл
эвээс зохимуй. Зөрчиж ял үйлдсэн хүн гарваас, хууль
д заасны дагуу ял оноохоор үл барам, түүнийг харь
яалах даргад мөн ял оногдууламуй.

[1] 군관 등은 군인들에게 함부로 할당하여 몇 푼의 돈, 몇 마리의 가
축 기타 일체의 물품들을 거두어 내는 것을 금지한다"

Нэгэн зүйл. Цэргийн дарга нь, цэргүүдээсээ зүй буса
ар сохор зоос, толгой мал, бусад эд юмыг дээрэмдэхи
йг цаазламуй" хэмээ жээ